

비수도권 벤처창업생태계 조성 '주목'

전북자치도, 한국산업은행 KDB 넥스트라운드에서 '푸른 개구리상' 수상... 벤처펀드 1조원 조성 등 성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6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2024 클로징'에서 '푸른 개구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스타트업 및 벤처창업생태계 육성에 기여한 공로기관에 수여되며, 올해 전국에서 단 5개 기관에만 주어졌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수도권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2024 클로징'에서 스타트업 및 벤처창업생태계 육성에 기여한 공로기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푸른개구리상'을 수상받아 김관영 도지사가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KDB 넥스트라운드는 한국산업은행의 대표 기업설명회(IR)로, 이날 열린 기념식은 KDB 넥스트라운드 성과와 비전을 벤처창업생태계 구성원과 공유하고 기업설명회 800회 달성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역대 수상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지자체 차원에서 선정된 전북자치도는 이날 스타트업(클로봇·이노스페이스), 벤처캐피탈(한화투자증권·스트롱벤처스)과 함께 푸른개구리상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산업은행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매년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7월에는 지역아운드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총 1,406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3개를 조성했으며, 현재까지 도내 6개 기업에 95억원의 투자를 단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들어 도지사 직속 기업유치지원실에 창업지원과를 신설('22년 10월)해 창업무전반의 위상을 격상하고, '벤처펀드 1조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의 팀스(TIM) 프로그램 적극 활용' 등 기술역량을 갖춘 미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벤처생태계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팀스 운영사 5개 기업(소

풍벤처스·로우파터너스·크립톤·MYSC·스케일업파트너스)을 유지하고, JB기술주주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2개 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창업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스타트업 육성'을 주제로 전북의 혁신 비전과 창업생태계 조성 및 새만금의 미래를 중점으로 변화하는 전북

의 매력을 역설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푸른개구리상이 상징하는 도약 정신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전북도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전북의 모든 경제주체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국가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제2차 사회적경제위원회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경제 밑그림 그린다'

도, 제2차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4대 추진전략·12대 중점과제·87개 사업으로 체계적 비전 제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제2차 사회적경제위원회(공동위원장:김중훈 경제부지사, 양춘제 (사)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근거로 2025~2029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근거로 2025~2029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4대 추진 전략은 △사회적경제 조직 자생역량 강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대응력 확대 △사회적 실천력 향상 △협력 및 지원체계 확충이며, 12대 중점 과제로는 △사회적경제 기업 부문별 조직 내실화 △지역사회 생애주기 돌봄서비스 사업화 △사회적경제 교육과 인력양성 기반 확충 등이다.

또한, 87개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 타 부처와 연계 가능한 신규 과제 발굴과 함께 전북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착수된 용역은 전북연구원 이 전담했으며, 민간 전문가 위촉과 간담회,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과제를 도출했다. 용역을 집담한 전북연구원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정부 정책기조 변화 속 전북자치도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12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시군 제6회 부단체장 회의 개최

도-시군 간 정책·현안사항 등 공유·논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위한 협력 방안 중점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6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도와 시군은 이날 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 세계인이 하나되는 지구촌 대추제인 '제36회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 선언한 만큼,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14개 시군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6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진행한 후 참석자들이 하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특히,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도내 전역에 봄 조성 및 밤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도는 올림픽 유치 현장 실시(내년 1월 6~7일) 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의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다가올 대설·한파에 맞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재난 대비 체계 강화, 취약시설 점검 관리, 취약계층 보호 강화, 도민홍보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선제적인 상황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의 소비촉진과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4분기 소비투자 집행 추진상황도 논의했다. 시군별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을 모색했다.

도는 이 외에도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례사업 본격 추진 △2차녀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북한이탈주민 지자체 채용 확대 등 지역의 현안사항 2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이차전지 대학원 설립 지원 △새만금 산업단지 확대 조성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규제 완화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지정 등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한 시군 건의사항을 논의했

으며, 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에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로 홍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도-시군간 부단체장 회의는 도-시군간 정책과 현안사항 등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며,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우리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14개 시군이 자원과 역량을 총결집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급경사지 안전이 최우선"...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열려

14개 시군 900곳 현장조사 완료... 급경사지 DB 구축 통해 재해 예방 사업 확대 추진 예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도청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도로관리사업소와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방재협회에서 그동안 현장 추진 상황과 실태보고서 활용 계획 등을 설명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급경사지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된 법적 의무 사항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해당 용역을 추진해 900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으며, 신규 및 기존 미등록 급경사지를 발굴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행정안전부 GIS 분석 결



지난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된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고위험지역 지정과 사업비 산출 등을 통해 국비 재해 예방 사업 수요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윤종욱 도민안전실장은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국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급경사지 156곳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내년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0개 시군 16곳에 총 170억을 투입해 급경사지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도 신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자동차융합기술원 항공산업 얼라이언스 세미나

전북자치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공동주최한 '수요맞춤형 항공 산업 육성지원 성과발표회 및 항공산업 얼라이언스 세미나'가 지난 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도내 미래 항공 모빌리티(드론·UAM) 관련 기술개발 성과와 외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항공산업 발전 방향을 교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성과발표회에서는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20개 선정 기업들이 혁신적인 R&D 성과와 시제품을 전시하며, 도내 기업들과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항공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발표 내용은 △무인항공기 개발을 통한 eVTOL 기체 개발 방향(마이크로 엔지니어링 장진동 대포) △UAM의 교통관리 및 운항관리 시스템 활용기술(대한항공 강승모 차장) △UAM 관련 최신 국제 동향 및 항공기 인증(항공안전기술원 정하걸 수석) △군용 무인항공기 감항인증(대한민국 해군 김무근 주무관) 등으로, 도내 기업과 산업 관계자들에게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유익한 방향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만호 기자

김제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전북자치도는 지난 6일 김제시 공덕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8번째 양성발생 사례이다.

도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환원이 확인된 즉시 총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했으며, 사육 중인 오리 1만7,868수를 살처분했다.

또한,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4호(닭 37, 오리 3, 메추리 1)에 대해 이동제한, 소독 강화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도, 자원순환 우수 지자체 평가 발표

익산시·고창군·최우수, 남원시·임실군-우수 지자체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2024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익산시와 고창군이 최우수, 남원시와 임실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의 자원순환 정책 이행력을 높이고, 생산적인 경제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청소행정 효율성 △자원재활용 확대 △역점시책 추진 등 7개 부문,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시군별 자원순환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는 익산시가 최우수, 남원시가 우수로 선정됐으며, 군 지역에서는 고창군이 최우수, 임실군이 우수로 뽑혔다.

특히, 주민 1인당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 정부의 순환경제사회 구현 목표와 연계한 점이 눈에 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평가에서 1회용품 없는 날 운영(54회) 및 공공기관 청사 내 폐캔(95회)을 지난해 대비 2배 확대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량이 16% 증가한 3만 톤에 달하는 등 주요 정책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선정된 최우수 지자체(익산시, 고창군)에는 각 800만 원, 우수 지자체(남원시, 임실군)에는 각 4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관포상도 수여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군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원순환 분야의 정책적 협력과 확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2024년도 최종 예산안 상정

제2회 추경안 상임위·예결특위 거쳐 11일 본회의서 확정

환경보 의원,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보류해달라"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며, 제1회 추경 대비 27억9,900만원(△0.16%)이 감소된 1조7,635억1,600만원의 예산이 상정됐다.

의회의 이번 3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시가 편성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예정이며, 2024년도 최종 예산안을 오는 11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보 경제건설부위원장(사진)은 안전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11월 14일 경제건설위원회 현안 업무보고 때 시에서

조직개편안 보고를 했는데, 3차 본회의까지 경제건설위원회에 조직개편안 수정안에 대한 추가보고는 없었다"며 "지난 11월 11일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조직개편시 전문용역을 추진해 내실 있는 조직개편을 요청해달라 했음에도 시에서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좀더 신중한 조직개편을 위해 안전을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이한세 의원이 지난 11월 윤리특별위원회와 위원을 사임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광민 의원을 선임하고 최정호 의원(바 선거구)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군산=이재준 기자



환경보 경제건설부위원장(사진)은 안전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11월 14일 경제건설위원회 현안 업무보고 때 시에서